



세계관 공부의 최고 학교, 공동체

박경옥

지난 세기 영국의 교육학자 샬롯 메이슨(Charlotte Mason)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분위기요 훈련이며 삶이다.” 교육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특정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교육자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삶 전체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기독교 세계관 공부에도 적용해 보려고 한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 역시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이슨도 이 적용을 기뻐하리라 생각한다. 그녀의 교육 목표 역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는 ‘분위기(atmosphere)’이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관 역시 정해진 공부 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환경 중에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 공부에 중요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 기독 공동체도 다른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난다. 인간이기에 너나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를 받아 주리라 기대하기에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기독 공동체의 특징이다. 그러나 완벽한 환경이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 역시 공부이다. 죄와 실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사과, 그리고 용서와 수용이 따르는 공동체는 사회의 어느 조직과는 다르다.

그 곳에는 두려움이나 심판 받는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없다. 경쟁적인 분위기도 아니다. 구성원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동등하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어른은 존경받고 아이는 사랑을 받으며, 어느 누구의 의견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으며, 앎과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에베소서 4:13).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관 공부는 자연스럽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사나 학생이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인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서로 도와주려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삶을 탐구하는 분위기: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를 가진 자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넘어서 주위의 것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진리의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이나, 영화, 유행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주위의, 소위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관 공부이다.

라브리에서는 정직한 질문을 환영한다. 식사 시간이든, 개인 지도 시간이든, 일하는 시간이든, 삶의 어떤 문제든지 같이 알아 가려는 태도를 존중한다. 어떤 정직한 질문도 무시당하지 않으며 성의 있게 다루어진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는 ‘훈련(discipline)’이다

교육은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냥 놔둬야 가장 인간답다’는 이론은 비현실적인 낭만주의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나무 가지를 치고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듯이 사람을 짜 맞추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나무 가지나 자동차 부품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택해야 하는 좁은 길은, 인간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되 잘못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준 후 그 안에서 창조주의 뜻대로 풍성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많은 규제나 방법론은 인간의 기본성품에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공부만을 위한 세계관 공부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살아있는 세계관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 훈련은 혼자하기 보다는 공동체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훈련: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목사님의 설교나 어수선한 분위기 속의 주일학교 시간으로 개인의 영혼이 채워지기는 어렵다. 아이들이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 년 내내 가족들이 각자 방에서 말씀을 읽고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지는 몰라도 전체로 보았을 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됨과 교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책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적은 부분이다. 몇 권의 성경 이야기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보물들이 성경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교회예배 형식과 똑같이 ‘사도신경’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이는 어느새 가 버리고 만다. 가족 구성원의 형편에 따라 독창적으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가정에서는 주로 아침 식사 후에 곧바로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큐티)을 가진다. 식탁에 둘러앉아 성경을 펴서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기도로 마친다. 아이들은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 뜻을 묻는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묻기도 한다. 부모는 아는만큼 대답해 주고 모를 때는 같이 사전을 찾아보기도 한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나쁘다느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등 아이들이 내놓는 솔직한 의견은 나이 든 부모에게도 충분한 교육이 된다. 시간이 충분할 때는 이야기가 길어지기도 한다. 그런 시간을 통해 성령님은 가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각자에게 깨달음을 안겨 주시는데, 나이 어린 아이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빠에게까지 성령님은 일일이 역사하신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기 쉽게 그대로 전달해 주지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신다. 어른들이 종종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먼저 다 씹은 후 교훈만을 아이들에게 캡슐로 만들어 넣어 주어야 한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 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보면서 아이들은 점차 역사 속에서 있는 자신의 중요한 위치에 눈뜨게 된다. 이것은 성경동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큰 유익이 아닐 수 없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것 역시 훈련이다. 가정공동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할 수 있으며, 이 생활이 몸에 배게 하는 데에 가장 좋은 곳이며 훗날 아이들이 컸을 때 하나님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의심을 의심치 않게 되는 밑거름이기도 한다.

라브리에에서도 아침 식사 후에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전 세계 라브리 모두가 기도회를 갖는다. 라브리는 구도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나 기도를 강요하지는 않으나 자연스런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보이지 않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공부나 어떤 시도도 소용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 가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할까?

둘째, 매사에 분별하는 훈련: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우리 사회는 매우 빨리 바뀌고 있다. 제대로 따라가기도 바쁠 지경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며, 어디에서 온 것이며,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은 고루한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행에 뒤질까봐 다른 사람들보다 뒤쳐질까봐 무엇이든 열심히 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새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삶을 부인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일들을 무작정 따라 하지 말고 ‘생각(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신다.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기에 이 일은 어렵다. 주위

에서 어리석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무턱대고 세상을 거부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의 선택은 매우 지혜로워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일이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훈련이다. 그리고 이 훈련은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도움으로 보다 쉽게 체질화될 수 있다. 어른들 역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이 훈련에 익숙해질 수 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쉽게 실패하기 마련이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훈련에 임할 수 있고 자신의 분별력이 점점 더 자라게 됨을 발견할 수 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생각은 간절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혹은 대화 가운데서 아직도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바꾸려고 노력하는 몸짓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간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는 '삶(life)'이다

샬롯 메이슨은 '교육은 삶이다'라고 말하며 가정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가정교육, 학교 교육, 교회 교육 등으로 구획화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태도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한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씩 좀더 완숙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뒷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삶이다. 객관적인 기독교 진리의 이해와 더불어 기도를 통해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맞보는 삶이 병행되지 않고는 기독교를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공동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번 만나야 하는 '세속적'인 것들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는 우리의 큰 고민이다. '믿음'이라는 상자 속에 들어가서 안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삶일까?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배치되지 않을까?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어른들만이 겪고 있는 고민이 아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솔직하게 문제들을 털어놓고 기도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아이들은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훨씬 쉽게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언제나 든든히 받쳐주는 가정이 있기에 아이들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것이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화를 보고도, 신문 광고나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감탄할 만한 아이디어나 숨
씨를 보고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적절하거나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공동체는 이래서 좋은 것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라면 판단 받을까봐 두려워서 주
저하는 이야기들도 공동체 가족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공동체, 가장 좋은 세계관 학교이다.

둘째, 만유의 주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로마서 11:36)”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독
교’ 속에서 옹크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보고 싶은
것 다 보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굴레(?) 때문에 좁고 웅졸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되었
다.

길을 걸으며 성경구절만 외우느라고 나뭇잎 색깔이 바뀌는 것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성경구절 외우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년 봄마다 소생시키시는
나뭇잎의 존재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좁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행위
이다. 나뭇잎을 보고 감탄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자연주의자들이 아니라면
말이다. 오히려 감탄은 그 동안 우리의 무관심 속에 버려졌던 또 하나의 하나님 숨씨에 놀라고 영광
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 위의 성경말씀처럼 자연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학문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학문의 세계 역시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케 (고린도후서 10:5)”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임무이다. 그러나 학문의 세계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이 세상의 주류인 비기독교인 학자들에 비해 소수인 기독교인 학자들의 목소리
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 보인다. 자칫하면 학문의 세계에서 이류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기독교 정치’, ‘기독교 경영’,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스스로 이류로 전락하고 기독교
세계에 안주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수학’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성막을 재
고 노아의 방주를 재다고 해서 기독교 수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일반 학문 안에서도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학문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것을 발견하고 발전시
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쳐 떨어지도록 놔두시지 않고 무기를 주신다. “우
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린도후서 10:4)”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는 것이다. (참고, 에베소서 6:12-17)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며 광범위하다. ‘만유의 주’와 함께 하기 때
문이다. 취미생활 역시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즐길 수 있다. 주님을 주님
으로서 제대로 모시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편한 점도 있다. 우리 편한 대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만유의 주님은 편안히 쉬고 싶은 우리를 자꾸 깨우셔서 우리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사회에서도 말씀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당위성에 부딪치
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I want)을 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하는 것(I must)을 찾아

야 한다. 그리고 나의 의지로 하겠다(I will)고 결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짧은 시일 내에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 단 한번의 성공적인 순간 뒤에는 실패로 얼룩진 쓰라린 상처들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상처들을 싸매어 주고 안아 주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는 분위기이며, 훈련이며, 삶이다. 이 공부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고 풍성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부족하나마 실현시키는 힘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런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학교이다.